

제439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10월7일(수)

장소 국방부회의실

의사일정

-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105인 발의)(의안번호 2221705)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진성준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1776)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105인 발의)(의안번호 2221705) 2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진성준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1776) 2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진성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 지뢰 폭발사고 관련 규탄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 발생한 비무장지대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가 오늘로 2주 이상 경과했습니다. 이를 전인 10월 5일에는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였고 이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이 중경상 등 큰 피해를 입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안이 엄중하고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회가 적정한 시점에 북한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엄중한 경고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방위원회를 개최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가 9월 30일과 10월 2일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진성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의사일정 상정을 위해서 필요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105인 발의)(의안번호 2221705)

2.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진성준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1776)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경원 의원 등 105인이 발의한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저와 160인이 발의한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건명과 결의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래서 다른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서 의사를 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병주 간사위원님 신청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작전 간 중상을 입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요 도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국방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규탄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하자고 제의를 했고 저희 안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됐었는데 그 당시 유감스럽게도 인도적 지원 대책 재검토 이런 것들을 추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상정한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국방위가 규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규탄 결의안이 최대한 빨리 소위에 넘어가서 소위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규탄 결의안이라고 낸 내용을 보면 제목이 아주 불손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DMZ……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과 부상 장병 예우·지원

축구 결의안입니다. 여기는 ‘규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정쟁으로 삼기 위해서 ‘축소·은폐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군은 축소·은폐한 사실도 전혀 없고 실제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또 이남에 있는 지뢰를 폭파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이제 목 자체가 아주 정쟁으로 삼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안을 소위에 넘겨서 최대한 빨리 여야 합의로 북한 규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국방부 건물 회의실에 오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때 두 달 만에 뺏아서 대통령실로 썼던 곳입니다. 그래서 비정상화됐던 것이지요. 저는 그때 저의 눈에 흠이 들어갈 때까지 윤석열과 그것을 주도했던 세력들을 용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곳에서 국감을 열고 한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순간이라서 너무나 가슴 벅칩니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룬 상징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임종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임종득 간사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국민의힘 간사 임종득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뢰 도발사고가 일어나자마자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심여 일을 끌면서 응하지 않다가 9월 30일에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방부, 합참은 이번 사고가 MDL 이남지역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전협정 위반, 도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민주당에서 대북 결의안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발이 명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 왔습니다. 도발이 명확한데 그 도발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도발에 상응하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 반대했습니다.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와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 사안에 대한 재검토도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우리를 보고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105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뢰 폭발사고 축소·은폐 의혹, 장병 예우·지원에 관한 결의안은 꼭 필요한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데 질질 시간을 끌면서 오래 하는 가운데 은폐와 축소 의혹이 있었고요. 지금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밝혀내서 북한의 도발임을 알리고 그것을 축소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응분

의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장병 예우와 관련돼서도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장병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공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친 우리 장병들이 빨리 치료를,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여야를 따지고 옳으니, 그르니, 불순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일어난 25사단 지역의 우리 장병들의 부상 부분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잘잘못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이 결의문을 검토하고 위원들을 모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주 간사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또 임종득 간사위원님께서도 결의안의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결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결의안 처리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는 지가 2주가 지나도록 국방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감사 기간이기는 합니다마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이 결의안을 조속하게 심사해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강선영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성희 민홍철 박선원 성일종 송영길 유영하
유용원 임종득 진성준 천준호 천하람 한기호 황명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전문위원 문성환